

# 웅덩이를 건너는 방법

이혜령 장편동화 | 오승민 그림 | 별숲 펴냄



- 여러분은 '걱정 인형'을 알고 있나요? 걱정 인형은 여러분의 걱정이나 고민을 가져간다고 해요. 해인이는 미술학원에서 만든 걱정 인형 '작은 오해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음이 편해졌지요. 여러분도 걱정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나요? 나만의 걱정 인형을 디자인해 봅시다.

## 내가 만들 걱정 인형의 모습

걱정 인형의 이름 :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요? :



내가 만든 걱정 인형에게 나의 고민을 들려주세요.  
걱정 인형이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가지고 갈 거예요.

# 웅덩이를 건너는 방법

이혜령 장편동화 | 오승민 그림 | 별숲 펴냄



- ‘웅덩이를 건너는 방법’은 저마다 자기만의 웅덩이 앞에 선 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책 속에서 살펴본 세 소녀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비 오는 날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엄마가 데리러 안 오는 불쌍한 아이. 빗물에 옷이 달라붙을 때마다 사람들의 혀 차는 소리까지 내 몸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무리 지어 한목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나는 두려웠다. 그 애들의 화살이 언제 나에게 꽂힐지 모르니까. 그 화살에 한 번 맞았던 자국이 여전히 육신거리니까. 나는 웅덩이에 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는 지금 이 길을 탐색 중이고 이 또한 즐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말아야. 누군가 나를 우연히 보더라도 불쌍해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도록 그랬던 거 같아.’

# 웅덩이를 건너는 방법

이혜령 장편동화 | 오승민 그림 | 별숲 펴냄



● 세 소녀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의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웅덩이’와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볼까요?

1. 해인의 웅덩이는 무엇이었나요?

2. 겨울이의 웅덩이는 무엇이었나요?

3. 수아의 웅덩이는 무엇이었나요?

4. 빈칸에 나의 생각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내가 웅덩이에 빠질 것 같다면 나는 ..... 하겠다.

5. 빈칸에 나의 생각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누군가를 웅덩이에 빠뜨리려 하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 하겠다.

6. 빈칸에 나의 생각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웅덩이에 빠진 누군가를 보았다면 나는 ..... 하겠다.

7. 《웅덩이를 건너는 방법》을 읽고 난 나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8.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준다면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